

개혁개방과 중국조선족 여성문학

오상순

개혁개방과 중국조선족 여성문학

오상순

국문초록

여성의식의 각성과 함께 80년대 후반기부터 30여명의 여성작가들이 조선족문단에 등장하여 여성의 생존상태, 생활운명, 인생가치 등에 대한 주체적인 사고로 문학창작을 하면서 여성문학이 형성되었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여성작가대오는 더욱 확대되어 40~50명의 여성작가들이 대량의 중·단편소설작품을 창작하였을 뿐 아니라 여성작가의 개인소설집과 훌륭한 훌륭한 장편소설들이 국내외에서 출판되었다.

80년대 여성작가들의 소설은 상당히 낭만적이고 이상적이면서 조금은 추상적인 분위기를 띠었고 외유내강, 현처양모의 전통적인 미덕을 갖춘 여성상을 많이 부각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의적 또는 타의적으로 남성중심의 사고에 얽매었던 과거에서 해탈하려는 모지름 속에서 자립적인 인격을 추구하는 새로운 이상형의 여성상을 창조하기 시작하였다.

80년대 여성작가들이 대개 전통적인 윤리도덕과 현대적 가치관, 가정과 자아가치실현 또는 가정과 애정 사이의 충돌에서 오는 여성들의 고뇌와 갈등, 그리고 여성의 자아각성 등을 그렸다면, 90년대 여성소설은 상품경제의 충격 하에서 겪는 여성들의 갈등과 고뇌, 그들의 가치관 변화 및 여성들의 각성과 여성운명에 대하여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80년대 말부터 우리 여성문학이 탐구해온 여성운명에 대한 사고와 반성의 연장선이며 심화이다.

90년대 여성소설 가운데는 또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전통적인 의식구조와 새로운 가치

관념의 충돌 속에서 우리 민족 지식여성들의 정신세계와 운명을 파헤친 작품들도 적지 않다. 특히 개혁개방의 시대적 전환기에 애정의 결핍과 정신적 빈곤 때문에 방황하는 지식인 여성들의 곤혹과 고뇌는 인상적이다.

주요어: 개혁개방, 조선족 여성문학, 80년대 조선족 여성작가, 90년대 조선족 여성작가, 상 품경제의 충격, 여성의식의 각성, 조선족 지식여성

1. 여성문학의 형성

여성문학의 형성 여부는 우선 여성작가대오의 형성, 다음은 작품에 여성적 체험, 여성의식, 여성심리, 여성의 심미적 취향 등 여성적 특질이 반영됨으로써 남성작가들의 작품과 구별되는 데에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조선족문단의 **문학활동을** 사적으로 고찰해보면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후 70년대까지는 최현숙을 비롯한 몇몇 여성작가들이 문단에서 **활동하였지만** 여성작가들의 작품 자체가 남성작가들과 거의 다름없어서 여성문학이라고 명명할 만한 특성이 없었다. 80년대 중기까지도 조선족 여성문학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기 힘든 실정이었다. 이 시기의 여성문학 실태에 대하여 김원도는 <그때만 해도 최현숙을 이어 리혜선, 이선희, 김영금, 방룡주 등 극히 소수의 여성문인들이 남성작가들의 집단에 종속되어 있었고 그들은 다만 남성작가들이 설정해놓은 주제와 격식에 쫓아 자기의 **창작활동을** 진행하였다. 때문에 이때까지 여성작가들은 여전히 남성작가들의 시각과 품격에서 해탈되지 못하였다.>¹⁾고 평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식의 각성과 함께 80년대 후반기부터 30여 명의 여성작가들이 조선족문단에 **등장하여** 자신들의 생활세계에 주목을 돌리고 여성의 생존상태, 생활운명, 인생가치 등에 대한 주체적인 사고를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여성제재를 다룸에 있어서 여성의 시각으로 사회생활을 투시하고 여성 고유의 제일감각과 생활체험으로 여성의 자아세계를 개척함으로써

써 자기언어와 자기품격을 나타내기 시작하였고, 그 작품들도 여성적인 특질이 뚜렷해지기 시작하였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여성작가대오는 더욱 확대되어 4~50명의 여성작가들이 대량의 중·단편소설작품을 창작하였을 뿐 아니라 여성작가의 개인소설집들도 국내외에서 출판되고 훌륭한 장편소설들을 펴냄으로써 여성문학세계를 화려하게 장식해 갔다.

1988년에 김영금의 소설집 『바닷가에서 만난 여인』이 출판된 뒤 잇따라 1989년에는 류재순의 소설집 『여인들의 마음』, 이화숙의 『샘골에 둔 마음』이 출판되고 1992년에 이혜선의 『푸른 잎은 떨어졌다』, 1993년에 김영옥의 『미친녀』, 1997년에 다시 이혜선의 소설집 『야경으로 가는 여자』, 1998년에 박향숙의 『꿈속의 루각』, 이혜선의 『빨간 그림자』, 허련순의 『우주의 자궁』 등이 연이어 출판되고 1998년에는 여성작가들의 대표적인 소설작품을 묶은 당대 중국조선족 여류작가 소설선집 『여인의 시각』이 출판되었다. 뿐만 아니라 90년대 하반기에는 허련순의 장편소설 『바람꽃』(1996년), 박향숙의 장편소설 『여사장의 이야기』(1998년), 김순금의 장편소설 『굴러가는 태양』(1999년), 허련순의 장편소설 『빼꾸기는 울어도』(1999년) 등 무게 있는 장편소설들이 연이어 출판되었다.

이로부터 조선족소설문단에서 여성문학은 미멸할 수 없는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²⁾ 여성특유의 독특한 예술세계로 우리 문단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다. 여성문학이 오늘의 모습으로 성장하기까지 우리는 여성작가들의 피나는 노력과 땀에 절은 숨결을 깊이 느낄 수 있다.

1) 김원도, 「허련순소설문학의 특성」, 『문학과 예술』, 1996년 제1기, p.13.

2) 현동연, 「조선족여성소설에 체현된 여성 의식」, 『문학과 예술』, 1996년 제1기, p.8.

2. 80년대의 여성문학 및 여성형상

1) 전통적인 여인상

80년대 여성작가들의 소설은 상당히 낭만적이고 이상적이면서 조금은 추상적인 분위기를 추구하면서도 여전히 남성작가들과 비슷한 시각에서 여성세계를 관찰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들테면 김영금의 단편소설 『기러기』는 도시에서 태어나 도시에서 자란 처녀 애자가 산간벽촌에서 교편을 잡고 열심히 일하면서 도시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하고 초등학교밖에 다니지 못한 청년목수 춘일리와 결혼하는 이야기를 엮고 있는데 작품에서 노린, 따뜻한 마음씨와 서로간의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주제의식은 전통적인 “문벌” 관념에 도전하고 순수한 사랑을 지향한다는 개혁개방이전의 의식세계의 연장선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그 어떤 호소에 가까운 낭만적인 기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 여성작가들에 의해 부각된 여성형상은 흔히 전통미를 갖춘 이상형이다. 이를테면 류재순은 단편소설 『처녀』에서 주인공을 다음과 같이 부각시키고 있다.

“조용한 말소리, 조용한 미소, 조용한 걸음걸이 그리고 또 조용한……그는 자신의 생활을 것처럼 소리 없이 묵묵히 엮어나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한번도 그가 남들처럼 큰 소리로 웃고 떠드는 것을 본적이 없으며 성을 내며 통탕거리는 거동을 본적이 없다.

그러나 그의 아름다운 용모는 사람들의 인기를 끌었다. 해말썩한 얼굴, 호리호리한 몸매, 부드럽고 은근한 태도, 그러면서도 어딘가 강직한 맛을 주는 좀처럼 열릴 줄 모르는 도톰한 입술……”(『노처녀』, 소설집 『여인들의 마음』)

물론 개혁개방 이전 소설들에서 보여진 남성화한 여성형상보다는 변화를 보여주지만 우리 민족의 일반 소설들에서 흔히 창조되어 온 조선족여성의

이상적 모습을 그대로 그려내고 있다. 행동거지에서 외모에 이르기까지 전통적인 조선족 여성의 미를 다분히 지니고 있는 주인공 은숙이는 외모에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꾸러감에 있어서도 조선족 여성으로서의 외유내강의 성격적 특징과 순수하고 곧은 지조를 보이고 있다. 은숙이는 '문화대혁명'의 모진 풍파 속에서 연인을 감옥에 빼앗기고 일시적으로 그와 '계선'을 나누는 등 그때에는 있을 수 있는, 어쩌면 피치 못할 '혁명적 행동'을 하기도 하나 시종 자기의 연인을 잊지 않고 있다. 그후 그 연인(철남)의 아내가 병으로 사망하게 되자 대학생이고 처녀인 은숙이는 애까지 딸린 노동자인 옛 연인 철남이한테 시집가기로 마음먹는다. 한번 먹은 마음 변함없고 일편단심으로 자기 사랑에 충성하는 전통적 미덕을 보여주고 있다.³⁾ 그의 다른 소설 「흑금의 매력」에서는 주인공인 '나' (옥선)가 탄광노동자를 사랑하게까지 된 내심의 모순갈등을 보여주면서 것처럼 어렵게 얻은 사랑의 절실한 감정에도 불구하고 연인을 해란이란 처녀에게 양보하는 조선족 여성들의 전통적인 자아희생적 도덕관념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문단에서 중견역할을 하고 있는 허련순도 초기 창작에서 성격이 온순하고 남편에 충성하는 '현처양모' 형의 젊은 지식여성의 형상을 열심히 창조하였다. 「이내의 고니」, 「소용돌이」, 「이장기와 그의 색시」 등 소설에서 그가 창조한 여주인공들은 "성모"의 형상으로서 모두가 남편에 순종하고 남편과 가정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고통과 희생도 달갑게 받아들이는 여인들이다. 소설에서 '나'와 애련이, 미숙이 등 주인공들의 요구는 극히 간단하고 소박하다. 그녀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치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편과 자기 자식을 키우는 화목한 가정, 그리고 현처양모의 명성이었다. 이것은 또한 당시 여성작가들의 소설창작에서 보편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소박한 여성 의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와 같은 여성의식으로 허련순은 혼인과 애정, 가정문제를 둘러싸고 현처양모의 여인상을 통해 강렬한 가정 의무감

3) 김경훈, 「녀성문학의 의식세계 일별」, 『문학과 예술』 1996년 제 1기, p.13.

과 사회도덕의식을 강조하고 삶의 참된 도덕가치에 대해 탐구하고 있었다.

이밖에 「아버지의 참회」에서의 어머니, 「그녀의 세계」에서의 윤희, 「한 여인의 마음」에서의 혜란이, 「마음속의 여인」에서의 윤희 등 여주인공들의 성격에서 하나로 관통된 것은 정렬의 정신으로서 이러한 주인공들은 18세기 조선여성의 전형—**춘향을** 다시 보는 듯 한 느낌을 준다. 물론 예로부터 “외유내강”은 우리 조선민족 여성들의 고유한 민족적인 성격으로 되었고 애정에 대한 굳은 충성과 정조를 생명같이 여기는 것은 우리 민족 여성들의 미덕으로 되어 왔다.

그러나 이미 옹근 2세기란 기나긴 역사의 행정을 걸어온 오늘날까지 우리 여주인공들은 일단 애정과 사업, 애정과 모성애간에 모순이 있거나 자기의 애정이 그 어떤 위협을 받게 되는 경우 모두 주동적으로 자기 애정의 권리를 포기하고 달갑게 비극적 운명의 담당자로 나서는 것이다. 이렇게 무조건적인 너그러움과 선량은 우리 민족 여성들의 고상한 풍모를 보여준다기 보다 몽매에 가까운, 시대적 추이에 대한 무지라고 할 수 있다. 이 또한 80년대 초기의 현실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주·객관적인 원인으로 하여 이 시기 여성소설은 흔히 당대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시대의 맥박이 미약하게 안겨온다.

2) 자립적인 인격을 추구하는 여인상

이 시기 여성소설은 한편으로는 외유내강, 현처양모의 전통적인 미덕을 갖춘 여성상을 많이 부각시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의적 또는 타의적으로 남성중심의 사고에 얽매었던 과거에서 벗어나려는 자각 속에서 자립적인 인격을 추구하는 새로운 이상형의 여성상을 창조하기 시작하였다.

김미선의 단편소설 「날려보낸 꿈」에서 주인공 향란이는 남성중심의 사회의식에 도전하고 여성의 자립, 자강 의식을 추구하는 형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판매원 향란이와 모 대학 미술학부 졸업생 용길이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 그러나 용길이가 일본유학 통지서를 받은 후 향란이는 용길이와 갈

라질 것을 요구한다. 출국 전날 밤 “향란인 자신이 유학생의 연인으로 된 것이 영광스럽지 않소?”라고 묻는 용길이의 물음에 향란이는 “영광? 내가 왜 다른 사람의 영광의 그늘 밑에 서서 내 자신도 영광이라고 웨친담?”라고 침묵으로 대답한다. 향란의 자존심, 곧 ‘너의 영광의 공로부에 매달리고 싶지 않다’는 이 선언에 새 시대 우리 민족 여성들의 참된 인격적 가치가 있다. 향란이는 애정이란 “동등한 자격간의 기쁨의 유대”로서 쌍방이 평등한 인격과 자격을 확보해야만 그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며 불균형은 곧 파괴의 잠재력이라는 것을 이지로 감지한다. 하기에 그는 외친다. 여성도 인간이다. 자립적인 인격을 갖춘 **당당한** 인간이다. 인간의 존엄은 자기 인격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서만 보장될 수 있다고. 이것은 주인공 향란의 정신세계의 핵심인 동시에 작가가 향란의 형상을 통하여 보여주려는 새 시대 여성의식의 핵이라고 할 수 있다.

개혁개방 후 여성작가 가운데서 비교적 일찍 문단에 등단한 이혜선은 이 시기에 전통형의 여성형상과는 다른 개방형의 형상을 창조하여 여성문단에 이채를 돋우었다.

이혜선의 단편소설 「비내리는 날」의 주인공 경순이는 개방형의 여성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 경순이는 문혁칭직에 집념하다 보니 남편과 가정에 대한 의무감이나 헌신의식이 희미해지게 된다. 이 때문에, 그리고 남편 종철이의 사랑신조가 흔들리면서 그들 사이에는 숙희라는 ‘제3자’가 나타나게 된다. 사업과 가정, 가정과 애정 사이의 현실적인 모순갈등 속에서 경순이는 자기 나름의 선택과 추구를 고집스레 보이고 있다. 자기가 바라고 추구하는 것을 위해서는 가정까지도 희생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인격과 존엄을 위해서는 애정일망정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라면 서슴없이 버린다는 주인공의 개방적인 의식에서 우리는 류재순 소설에서의 ‘은숙이’나 ‘옥선이’와 확연히 구분되는 다른 인물형상을 보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작가가 이런 개방형의 여성상을 부각함에 있어서 남성작가들이 부각한 ‘여성자강’와는 달리 여성적인 시각으로 여성들만이 가지고 있는 감

상적 기분과 고민과 갈등을 안고 있는 여성형상을 그리고 있다는 점이다. 소설의 주인공 경순이는 숙희와 남편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들의 밀회를 마련하는 대담한 시도를 서슴지 않는다. 경순이는 정서적 안정과 자기위안을 위하여 향수를 온 집안에 뿌리는가 하면 사랑의 적수인 숙희의 '평범한 얼굴'을 깔끔한 자기 얼굴과 비겨보고 긴장을 풀다가도 상대의 어린 나이와 날씬한 몸매에서 어렴풋이 패배감을 느끼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종철의 마지막 편지를 받고 "애착심도 아니고 증오도 아니고 후회도 아닌 이름할 수 없는 감정"에 빠졌다가도 그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공연히 "가슴이 덜컹"하는 두려움을 감수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경순이는 숙희를 '이해'해 주기도 하고 남편 앞에서 숙희의 손을 쳐들어 숙희가 이겼음을 수긍하기도 하는, 어디까지나 경순이다운 여인이다.

이혜선의 중편소설 「너를 멀리멀리 바랜다」에서의 여주인공 '나' (춘희) 역시 개방형의 현대여성이라고 할 수 있다. "광활한 천지"에로 "재교육"을 받으러 내려간 춘희는 삶의 고달픔 속에서도 불의에 용감히 맞서고 약자에 동정심이 많으며 자기의 이상을 끈질기게 추구하는 의지가 강한 여성이다. 여자로서 고된 노동에 지치고 생리적으로 성숙되면서 까닭없이 슬퍼하기도 하고 허무한 망상에 시달리기도 한다. 그렇지만 그녀는 남자들도 꺼려하는 깡패와의 겨룸에 나서기도 하고 "입단...입당...대학교 추천"과 같은 그 시대의 이상을 추구하기도 한다. 피치 못할 운명과 인간고에 고통의 눈물을 흘리며 또 그 속에서나마 남다른 이상을 안고 필사적인 몸부림을 거듭해 가는 주인공 춘희는 작가의 대변인 또는 화신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아무튼 감각적이면서도 이지적으로 의식과 몸을 성숙시켜 가는 춘희는 「비내리는 날」에서의 경순이와 함께 보다 개방적인 사고로 폭을 넓혀 가는 다른 한 부류의 조선족 여성의 이상형이다.

방용주의 「술꽃」의 주인공 정임이는 위에서 부각된 전통형의 여성상이나 개방형의 여성상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는, 그 중간형의 여성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정임이와 범수는 대학시절의 연인으로서 고향에서 질 좋은 맥주를 만들어내는 것을 앞날의 이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 “활발하고 감상적인 옥화”란 처녀가 끼이게 되어 정임은 범수의 버림을 받게 된다. 그때 범수는 정임을 ‘수집어 하고 감정을 숨기는 걸 미덕으로 여기는’ 내성적인 여인으로 생각했다. 그후 정임이는 현의 맥주공장 공장장으로 되어 “Fe맥주”를 만드는데 성공하여 역시 공장장인 명수네 지구맥주공장의 맥주를 질적으로 누름으로써 자기에 대한 범수의 그 같은 인식을 뒤집어놓고 만다. 그때에야 범수는 정임이가 “온몸에 야성과 에너지뿐”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소설에서 정임이는 더는 개방형의 형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전통적이면서도 개방적인 요소를 함께 띤 중간형의 여성상으로 머무르고 만다. 그녀가 술 공장을 세우고 술꽃 재배면적을 넓히고 “Fe맥주” 공장을 만들어낸 것은 그녀가 계속 재가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무시된 인격에서 자의식을 찾으려는 데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거니와 더 중요하게는 범수와 의 재회를 목적으로 한 애정추구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녀는 두 맥주공장의 합병을 꿈꾸며 범수의 가까이에서 “그저 기술과 과정쯤이면” 된다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애정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정임의 형상으로 하여금 사업과 애정의 풍만한 성취라는 직가의 염원과과는 반대로 애정을 위한 사업 즉 사업과 애정의 괴리를 빚어냄으로써 전통과 개방이라는 이율배반의 요소를 지닌 중간형의 인물로 고착시키고 말았다.

허련순의 단편소설 「고루한 녀」에서도 이와 비슷한 형상이 창조되고 있다. 여주인공 백운이와 영준이는 서로 지극히 사랑하는 한 쌍의 연인이었다. 그러나 영준이 매부와 누나의 간계로 백운이는 영준이의 오해를 받게 되고 그들의 사랑은 무너지고 만다. 그 후 진상을 알고 영준이가 다시 백운이와의 사랑을 추구할 때는 그녀는 이혼한 ‘과부’였다. ‘과부’라는 이유 때문에 무작정 반대하는 부모와 친척들, ‘과부’에게 덮씌우는 ‘추문’ 날조, 백운이는 그 속에서 절망과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고민하다가 결국 자기를 ‘방탕한 여인’으로 가장하여 영준이로 하여금 단념하게 한다. 그러면서도 자기

의 순결을 과시하기 위하여 일생을 홀로 살아간다. 세속에 매몰대어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녀의 형상은 참으로 가련하고 슬프고 아름답다. 자기의 순결을 과시하면서 독신주의를 고집하는 그의 행동은 전통윤리도덕에 대한 항거와 도전인 동시에 나약성의 발로이기도 하다. 작가가 노린 것도 주인공의 모순된 성격을 통하여 세속관념의 완고성과 잔인성을 고발하는 데 있다고 본다. 어찌 보면 현대 사회에서 여성들이 진정한 해방을 얻는 데에 가장 무서운 적은 외세의 편견이나 압력보다도 자기 자신이 아닌가 한다. 여기서 높이 평가하고 싶은 것은 작가가 한번 더 비틀어 내세운 “방탕한 여인”에게서 우러나오는 참된 사랑의 이미지와 세속에 대한 강렬한 반항의식이 감미로운 예술적 매력으로 이 작품에 무게를 주고 있는 점이다.

한마디로 80년대 말기에 이르러 여성작가들의 시야는 좁은 가정울타리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또 작가들의 감정도 여성운명에 대한 하소연에만 그치지 않았고 보수적인 전통의식에서 개방적인 여성의식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여성작가들은 여성특유의 부드럽고 은근한 감수성으로 보다 체형적이고 구체적이며 세밀하고 정서적인 형상들을 창조하였다는 데에서 남성작가들과는 다른 특징을 보여주었다. .

3. 90년대의 여성소설 및 여성형상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여성작가들의 주체의식은 전례 없이 고조되고 문화적 사유도 더욱 활발해지고 민감해지고 개방되었다. 따라서 우리 문단의 여성문학은 자연적 존재, 사회적 존재, 정신적 존재로서의 여성의 존재가치에 대한 사고가 더욱 높은 단계에 이르렀고 정치적인 표층에서 윤리적이고 심리적이고 인간성적인 경지로 진입되었다. 그리하여 90년대 여성작가들은 ‘인간의 자각’ 과 ‘여성의 자각’ 이 결합된 차원에서 여성발전의 길을 모색하게 되었다.

따라서 80년대 여성작가들이 대개는 전통적인 윤리도덕과 애정, 가정과 자아가치실현 또는 가정과 애정간의 충돌에서 오는 여성들의 고뇌와 갈등, 그리고 여성의 자아각성 등을 그렸다면, 90년대 여성소설은 상품경제의 충격 하에서 겪는 여성들의 갈등과 고뇌, 그들의 가치관 변화 및 여성들의 각성과 여성운명에 대하여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80년대 말부터 우리 여성문학이 탐구해온 여성운명에 대한 사고와 반성의 연장선이며 심화이다.

1) 사회진출에서 느끼는 곤혹과 갈등

지금 우리 사회는 거대한 변혁을 겪고 있다. 시장경제의 도입과 함께 사람들의 의식구조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청빈한 것을 고상한 것으로 생각하던 시절은 가고 물질적 향유와 금전이 중요한 위치에 나서게 되었다. 그리고 평생직업을 보장하던 '철밥통'이 깨어지고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게 되자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두는 것은 생존에 대한 문제이다. 또한 남자가 주요한 경제 내원이었던 가부장적 가정구조가 시장경제의 충격 속에서 와해되고 오히려 여성들이 치부의 중견역량이 되었다. 이로부터 지난날에 숭상하던 '현처양모'의 위상은 부서지고 그 대신 생존을 위하여 악전고투하는 새로운 여성형상들이 문단의 정면에 나서게 되었다.

농촌여성들의 도시진출은 이 시기 우리 사회 내지 문학의 중요한 내용이었다. 중국에서 가장 빈곤한 지역은 농촌이다. 시장경제의 문이 열리자 땅에 매달려서는 평생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생각한 농촌여성들은 대담하게 사회로 진출하였다. 물론 보따리장사, 김치장사, 떡 장사, 식당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도 적지 않고 가라오케, 다방 등 유흥업에 종사하는 여성들도 상당수이다. 자금, 지식, 졸업증서, 인간관계 망 등 도시진출에 필수적인 조건이 하나도 없이 무작정 도시에 뛰어든 농촌여성들에게 있어서 식당이나 다방, 가라오케에 들어가는 것만큼 쉬운 일은 없었다. 그리하여 작가들은 우선 시장경제의 충격 속에서 곤혹과 진통에 모대기는 농촌여성

들의 운명에 관심을 돌리고 시장경제의 소용돌이 속에서 도시의 밑바닥에서 발버둥치고 좌절당하고 방황하고 타락하고 재생하는 등 다종다양한 여성형상을 부각하면서 따뜻한 동정을 보내고 있다.

김영자의 「가을비 내린다」에서 옥자의 형상은 매우 사색적이다. 도시로 진출했다가 차 사고로 남편을 잃고 친구 정녀를 따라 고향으로 돌아온 그녀는 많은 빚을 내어 다루던 담배 밭이 물에 잠기자 밭을 구하기 위하여 몸까지 바친다. 그러나 약속대로 물길을 턴워주지 않는 남식이를 분에 못 이겨 삽으로 찌고 상해죄로 구류된다. 석 달 후 구치소에서 풀려나오나 엄청난 빚 때문에 고향에 돌아가지도 못한다. 결국 옥자는 “사람구실 못 할 바에는 승냥이처럼 악착하게 살아야지. 나라고 왜서 뜯기고 할퀴우기만 해. 나도 돈을 벌어야지. 후려내야지.” 이렇게 이를 갈며 “봉황술집”에 아가씨로 들어가며 그곳에서 “자기를 짓밟고 억누르고 헐뜯고 갈퀴질한 빚 군”들과 자기를 망친 남식이를 알량한 거지로 만들며 수단을 가리지 않고 악착스레 돈을 모은다. 돈만 있으면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고 사람구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정작 돈에 미쳐 인생을 잃고 나니 남는 것은 끝없는 고통과 한뿐이라며 절망한다. 결국 옥자는 고향도, 자식도, 사회도 타락했던 자기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돈 멍치와 함께 어린 자식을 친구에게 부탁하고 피눈물을 흘리며 고향을 떠난다.

허련순의 중편소설 「투명한 어둠」은 농촌에서 도시로 자기의 생존공간을 넓혀 가는 여인들의 가치관념에 강한 생명력을 부여해준 수작이다. 농촌 처녀 은실이는 도시에 나와 “술집”에서 호스텔스로 돈을 벌기 시작한다. 그녀는 단골손님인 ‘선생’의 위선적인 감언이설에 정조를 빼앗기고 임신을 하게 된다. 순진한 그녀는 사랑과 성의 유혹으로 순결을 잃었지만 마침내 그 속에서 삶의 어려움과 세속의 험난함에 눈뜨게 되며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작가는 소설에서 의사인 ‘선생’의 아내가 자기남편이 임신시킨 은실이에게 유산수술을 하는 희극적인 장면을 재치 있게 엮음으로써 남성들의 허위와 부패상을 여지없이 폭로하고 피해의식에서 오는 은실이의 반역심리

와 보복의식을 강하게 보여주면서 가면으로 위장된 남권주의와 사회적 비리에 맞서고 있다.

기꺼운 현상은 우리의 여성소설이 시장경제의 충격 속에서 좌절당하고 타락하는 비극적인 여주인공들의 형상을 부각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섬세한 필치로 그녀들의 정신적인 고뇌와 갈등과 진통을 파헤쳐 진실하게 펼쳐 보임으로써 남성작가들과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소박한** 꿈을 안고 도시에 들어왔다가 정조를 잃고 사랑이 파멸되었을 때 돈에 팔린 자기에 대한 한탄과 변명, 저주와 불만이 한데 뒤엉켜 정신적으로 모진 고통을 느끼는 은실이, 이미 짓밟힌 몸이지만 술집여자로 들어가는 길에서는 모순과 분노와 절망으로 심한 진통을 느끼며 “돈에 울고 돈에 웃고 돈에 미쳐나 인생을 잃고 보니 남은 것이란 끝없는 고통과 **한뼉**”이라며 **통탄하는** 옥자 등의 형상은 그야말로 여성적인 시각과 감각으로 섬세하게 부각한 인상깊은 여인상이다.

이 시기 조선족 여성작가들의 작품에는 또한 해외진출에서 **당하는** 여성들의 고통과 그로 하여 겪는 고뇌와 갈등을 반영한 작품들도 적지 않았다. 농촌에서 한해를 피땀 흘리며 농사지어야 겨우 양식이나 해결하고 2~3천 원 정도밖에 남는 것이 없고 도시의 한달 노임이 겨우 몇 백원 밖에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한국을 비롯한 해외진출은 치부의 지름길이 아닐 수 없다. 때문에 출국을 위하여 일부 여성들은 수단을 가리지 않았고 또 그렇게 어렵게 출국해서는 갖은 인간고를 겪는다.

허련순의 「텅 빈 사막」에서 주인공 순이는 전남편이 진 도박 빚도 갚아야 하고 애도 키우고 살아가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이르자 한국에 친척이 없지만 호텔의 등록부를 들추어보고서 자기와 같은 윤씨 성을 가진 나이 지긋한 사람을 골라 당돌하게 초청장을 부탁해서 한국으로 가는 배에 몸을 싣는다. 그러나 순이는 돈에 의해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 냉혹한 한국사회에서 모욕과 능욕을 당할 대로 당하고 결국 되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암담한 현실에 이른다. 물론 작가는 주인공 순이의 형상을 통하여 외국진출이란 지름

길의 암담한 일면을 보여주면서도 이런 출로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다.

권선자의 「살아가는 인생」의 주인공 영실이는 돈벌러 러시아에 간 남편이 변심하자 유일한 무기인 자기의 육체를 미끼로 한족 외톨의 돈을 서슴없이 우려내어 자금을 마련한 다음 러시아로 결연히 떠나간다.

이와 함께 여성작가들의 소설 가운데는 섭외혼인의 이야기를 통해 조선족 여성들의 운명과 심리적 갈등을 파헤치고 있다. 줄곧 가난 속에서 어렵게 살아오던 조선족여성들 가운데는 잘 사는 한국에 시집가는 것을 인생의 희망으로 보는 이도 적지 않았다. 때문에 남편이 죽었거나 이혼한 과부들이 자식과 친지들을 버리고 먼 한국으로 시집가고 나 어린 처녀들도 무작정 한국결혼을 결심한다. 그러나 대부분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멸시와 굴욕으로 비틀어진 기형적인 생활이었다. 이런 섭외혼인을 반영한 작품들로는 김정희의 「한국 남자 중국 여자」, 「사랑의 애가」와 김진순의 「한국색시의 눈물」 등을 들 수 있다.

김진순의 「자유여 안녕!」은 잘 사는 나라를 동경하여 한국으로 시집간 조선족 아가씨의 고민과 방황과 자아각성을 쓰고 있다. 사회제도, 인간관계, 친척관계, 가치관의 차이, 문화지식의 차이, 남녀차이, 풍속습관 차이 등 모든 것이 다른 풍토에서 자유와 행복을 향유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 우리의 주인공은 행복에 대한 환상을 안고 한국에 시집을 갔다가 무수한 벽에 부딪치며 더욱이 남편의 무지와 폭력에 못 이겨 가출을 하고 그 와중에 자립자존의 능력을 키운다. 그후 남편은 어느 정도 관용과 인내를 보이나 그녀는 언제 또 불이 떨어질지 모를 불안 속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갈망하다가 결국 자존과 인격을 찾아 떠난다는 이야기다.

이들 작품에서 보여주듯이 섭외혼인의 길을 선택한 여자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은 정신적으로 많은 갈등과 고통을 느낀다. 원래 행복과 부유한 생활을 동경하여 한국에 시집간 그들이지만 그들에게 안겨진 것은 생활습관, 관념, 문화적인 이질성, 그리고 중국인에 대한 멸시와 남존여비의 인습에 젖은 한국남자들의 오만이였다. 바로 이런 냉혹한 현실의 부조화 속에서 실망과 환

멀을 느끼며 눈물로 세월을 보내지만 그런 질곡에서 벗어날 용기와 힘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일부 여성작가들은 그들이 비극적인 운명에 떨어진 것은 자아를 버리고 가부장적 가정올타리 안으로 들어간 결과라 보고 이들의 유일한 출로는 그 올타리에서 벗어나 다시 자아를 찾고 자립, 자강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섭외혼인을 막을 수 없는 사회현상이라고 보면서도 이 길을 이상적인 출로로 보지 않았다.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이 길은 흔히 자립, 자강의 길이 아니라 자아를 잃는 길이 되기 있기 때문이다.

2) 애정과 혼인에서 겪는 지식여성들의 갈등과 고뇌

90년대 여성소설가운데는 시장경제에 뛰어들어 그 속에서 분투하고 좌절당하고 타락하고 재생하는 조선족여성들의 다양한 삶과 운명을 그린 소설들이 상당수를 차지하는가 하면 또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전통적인 의식구조와 새로운 가치관념의 충돌 속에서의 우리 민족 지식여성들의 정신세계와 운명을 파헤친 작품들도 적지 않다. 특히 개혁개방의 시대적 전환기에 애정과 정신적 빈곤 때문에 방황하는 지식인 여성들의 곤혹과 고뇌가 인상깊게 안겨온다.

한여의 「멀리서 불렀건만」의 주인공 향이는 사랑이 없는 냉랭한 가정분 위기를 참지 못하여 이혼을 하고 그 가정에서 탈출했으나, 사랑의 항구를 찾지 못해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정신적 공허와 고독을 못 이겨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상급의 품에서 위안을 찾아보려 한 결과 영혼과 육체의 충돌 속에서 더 깊은 고통 속에 빠져버린다.

허련순의 「흔들리는 섬」의 주인공 헤인이는 무용가였는데 남편의 의사대로 자기 직업까지 버리고 남편이 만들어준 유족하고도 아늑한 보금자리에 들어갔다. 그러나 조롱 속의 새의 신세가 되어 외계와 격리된 생활을 하는 데다가 남편의 냉대까지 받게 되자 그 숨막히는 고독을 이기지 못하여 끝내는 「송선생」이라는 사나이의 품에 안겨버린다. 그녀는 남편과 송선생 사이

에서 “흔들리는 시계추”처럼 남편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나 “즐거움과 두려움이 양극으로” 치달으며 “심리평형을 파괴하고” 있었다. 거의 절망상태에 빠진 그녀는 송선생이자기를 구해줄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붙잡은 격으로 “절 데려다 주세요. 어디든지 절 데려다 주세요!”하며 부르짖는다.

고독이 주는 정신적 모대감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집을 뛰쳐나가고 정육의 분출구에서 생활의 새 길을 찾으려는 헤인이나 로봇과 같은 남편의 가정 울타리를 벗어나 다른 사나이와의 정사에 빠져들어 감정의 자유를 추구하는 「역광」의 주인공 윤희의 형상은 참으로 슬프다. 헤인과 윤희는 진정한 애정을 갈망하고 감정의 자유를 위하여 과격적인 행동도 하나 그러한 행위는 그들에게 출로를 열어주는 대신 더욱 큰 고통을 안겨준다. 그녀들은 일순간의 정사에서 일시적인 감정욕구를 실현하였으나 결국 위선적인 남성들의 배척을 받게 된다. 윤희와 헤인의 정신적 고뇌는 바로 여인으로서의 개성적 욕구와 그것을 짓밟는 전통적 도덕과의 갈등에서 오는바 이로 하여 그들은 번뇌와 불안, 격심한 초조감에 모대기고 있다. 결국 이혜선의 소설 「푸른 잎은 떨어졌다」에서 잊을 수 없는 첫사랑에 대한 갈망과 남편에 대한 죄의식에 모대기다가 끝내 ‘질투망상’이라는 정신병에 걸린 란이의 운명과 같이 헤인과 윤희도 주어진 객관환경의 지배와 자아의 연약성을 초월하지 못하고 비극적인 운명에 빠지고 만다.

문제는 작가들이 이들 지식여성들의 타락을 씬에 있어서 단순히 도덕적인 시각에서 ‘흔외련’을 부정하는 시각에서가 아니라 지성인들의 정신적 공허에서 생기는 심리적 고통을 이해하는 각도에서 동정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타락은 결국 그녀들에게 비극적인 결과만 가져다 줄뿐이라는 경종을 울림과 함께 이를 사회적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소설에서 이런 지식여성들의 갈등과 타락은 생존을 위한 농촌여성들의 타락보다 다른 차원에서 부각되고 있어 인상적이다.

4. 조선족 여성문학의 특성

여성문학의 특징은 무엇보다 여성의 시각으로 사회생활을 관찰하고 여성 특유의 생활체험과 감각으로 여성세계를 표현하는 것이다. 여성 운명에 대한 탐구는 여성작가들뿐 아니라 남성작가들도 줄곧 관심해 온 주제의식이었다. 이를테면 조선족소설문학에서 임원춘의 소설 「그날 해는 짧았다」, 장지민의 소설 「어머니의 꽃」 등 여성의 애정, 혼인, 가정 문제를 다룬 남성작가들의 작품은 흔히 여성을 고난의 상징체, 헌신적 정신의 상징체, 남성에 의뢰하고 남성을 위해 성실하게 살아가는 ‘현처양모’, 수난의 희생자, 모성 애적 박애정신을 지켜 가는 천사 등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삶과 운명을 보여줌에 있어서 남성작가들은 흔히 현실생활에서 겪는 여성들의 진통과 고뇌 등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복잡성과 오묘성을 발굴함이 부족하며 애정이나 삶을 위한 힘겨운 투쟁과 정신에 대한 발굴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여성작가들은 자기 소설에서 애정, 혼인, 가정, 직업 등 현실생활에서 겪는 여성들의 심리적 갈등과 모대김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생존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모지름과 그로부터 야기된 비극적 운명에 대하여 깊이 사고하고 있다.

1) 전통적인 윤리도덕에서 오는 갈등과 고뇌

조선족여성소설에서 우선 주목되는 것은 ‘현처양모’ 식의 생활세계에서 여성들이 겪는 생명의 진통이다. 오늘날 남녀평등은 사회의 긍정을 받고 있고 또 법적으로 제정되고 제도적으로 확보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조직형식일 뿐 현실적으로 여성들은 여전히 남존여비의 사회의식구조 속에서 피해 받고 신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비극이 끊임없이 속출하고 있다. 수천년간 지속되어 온 윤리도덕의식은 무형의 시슬처럼 사람들의 자유와 개성을 속박하고 있으며 심지어 개성의 파멸까지 초래하고 있다. 그리하여 조선

족 여성작가들은 무엇보다 새로운 시기 여성들의 생존세계, 남녀평등이라는 외재적 사회조직형식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여성들의 삶과 생존상태에 깊은 관심을 돌리었고 이에 대한 심층적인 발굴과 사고를 역사적 사명으로 자각하였다. 그들은 전통적인 윤리도덕의식에 의해 현실생활에서 당하는 여성들의 고통과 번뇌, 절망과 울분, 타락과 죽음 및 그들의 비극적 운명을 끈질기게 파헤쳐 진실하게 펼쳐 보여줌으로써 그것을 사회적인 문제로 독자들에게 사색을 던져줌과 동시에 무거운 인간적 고뇌의 여운을 안겨준다.

이선희의 「거미줄」의 주인공 정혜는 생활의 강자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재능 있는 도안설계사로서 사업에서 연구와 성과, 영예로써 자신의 생활을 충실하게 꾸려 가는 분투형의 여성이다. 그러나 그의 애정생활은 쓰고 뽑은 것이었다. 남편은 그를 하나의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성”적인 인간으로만 여긴다. 오직 남편의 아내여야만 했고 사회적 공민이어서는 안 되었다. 통신대학공부를 하는 것도, 사업토의를 하는 것도 모두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되었다. 정혜는 자기의 정열과 재능을 무참히 짓밟히고 싶지 않고 인격과 인간의 가치가 무시당한 ‘사랑’을 유지하고 싶지 않아 결연히 남편과 이혼한다. 그러나 이혼은 오히려 그녀에게 더 큰 고통과 번뇌를 가져다주었다. 이혼 전에는 남편 한사람이 자기의 앞길을 막아 나섰지만 이혼 후에는 수 십 명, 그보다 더 많은 쌀쌀한 눈길과 냉대와 조소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자의 갈 길이란, 인간의 가치를 찾으려는 자신의 길이 또다시 붉은 등의 차단을 받으리라고 생각지도 못했다. 가정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면 다시는 그의 앞길을 막을 장애가 없으려니 한 것은 완전히 오산이었다. 갑자기 정혜는 걸음을 멈추었다. 복도의 출입문 꼭대기에 애기 주먹만큼 한 왕거미가 지긋게 부지런히 거미줄을 늘이고 있었다. 세상의 편견이런저 완고한 거미가 능갈치게 줄을 늘리어 날벌레를 낚으려고 노는 것처럼 그렇게 지긋게, 완고하게 정혜의 앞길에 얼기설기 늘여지고 있다.”

‘여필종부’의 윤리도덕은 그렇듯 집요하게 사람들의 정신세계에 침투되어 여인들의 인격과 애정추구를 무참하게 짓밟고 있다.

이혜선의 「저녁노을」은 봉건적인 정조관념에 대한 피눈물의 공소라고 할 수 있다. 소설에서 춘자 어머니의 꽃다운 청춘을 짓밟고 생활에서 웃음을 빼앗아간 것은 바로 수천 년을 두고 여성들에게 들썩워진 그 '정조' 관념이었다. 물론 정조는 한 여성의 자존, 자애, 자강의 표현이며 자기 인격에 대한 사랑이다. 그러나 정조가 인간의 정상적인 생활욕망을 억압하고 자유와 정열의 파멸을 초래할 때 그것은 생활의 명에인 것이다. 벗어버릴 수도 밀어버릴 수도 없이 여성들의 애정생활에 들썩워진 이 명에에 의하여 춘자 어머니는 정신분열증에 가까운 변태적 심리의 인간으로 변하고 만다.

이밖에도 장경숙의 소설 「둥근달」에서 과부 일녀는 저녁마실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서 우연히 총각 미산이를 만난 것으로 하여 누명을 쓰게 되고 또 점쟁이에 의해 늙은 남자에게 재가하여야 할 운명에 처한다. 이선희의 소설 “너는 웃고 나는 울고”에서 성옥이는 캐나다에서 온 조선사람의 길 안 내를 서고 돈 백 팔라를 가진 것으로 하여 남편의 의심을 받고 전근을 위해 운주필을 만난 이유로 남편으로부터 “풍유적인 여자”로 몰리며 이런 “보따리”로 하여 생활의 십자로에서 곤혹에 모대기며 방황한다. 이혜선의 소설 “안개 낀 대안”에서 “모범열사의 아내”인 청상과부 삼녀는 독수공방의 외로움 속에서 모대기다가 시동생과 “사랑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고 이로 하여 “열사일굴에 먹칠한 화냥년”, “쌍년”으로 몰리고 쫓겨나기까지 한다.

그러나 개혁개방과 함께 우리 민족의 의식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던 전통적인 봉건의식도 막무가내로 파괴되면서 여성들의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이혜선의 「외로운 기다림」에서 며느리에 대한 팔십 고령의 시할머니의 태도 변화는 그러한 의식의 변화를 잘 말해준다. 과부 된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가까이 오가는 것을 안 시할머니는 “홍, 나이 오십을 먹구두 시집비위 나서 야단이야. 나 원, 오래 사니까 별꼴 다 본다.”면서 며느리를 “쌍년”이라고 욕을 퍼붓던 것이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자네 시에미더러 그 사람하구 살라 하계.”라고 손부에게 부탁한다. 전후가 모순되는 시할머니의 이런

태도는 봉건적인 정렬관념이 무너지고 있음을 생동하게 보여준다.

2) 애정추구와 혼인의 모순에서 오는 갈등과 고뇌

오늘 우리 사회에서 애정과 혼인의 자유는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고 남녀 평등권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러할진대 봉건적인 정조관념, 문벌차이, “3종4덕” 등 인간의 개성과 자유를 억압하는 전통적인 윤리도덕관념은 일찍부터 우리의 생활에서 자취를 감추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봉건적인 ‘남존여비’와 ‘종일이종(從一而終)’, ‘정조절렬’의 변태적인 도덕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성들의 인격과 존재가치를 무시하고 그들을 인생의 비극무대에 올려놓고 매질한다. 이러한 현실은 개성이 강하고 사회활동능력이 강한 현대적인 여성들의 삶에서도 재현되고 있다.

이혜선의 「푸른 잎은 떨어졌다」와 이선희의 「그녀의 세계」는 새 시대 여성들의 애정에 대한 새로운 추구를 정서적으로 보여주면서 시대의 변혁이 현대 가정결구에 주는 충격과 영향, 그리고 낡은 윤리의 붕괴와 새로운 애정윤리에 대한 탐색을 보여주고 있다. 이혜선의 중편소설 「푸른 잎은 떨어졌다」는 “혼외련”을 취급하면서 사회의 변혁이 사람들의 심리상태와 윤리관념에 일으킨 미묘한 변화를 여성적인 섬세한 필치로 펼쳐 보이고 있다. 정찬이와 란이는 중학시절의 동창생으로서 “재교육”의 어려운 나날에 깊은 우정과 사랑을 맺었다. 그러나 귀향청년과 하향청년 사이에는 뛰어넘을 수 없는 담벽이 가로 놓여 있었다. 어머니의 결사적인 반대로 란이는 시대적인 사조에 따라 어리무리한 현역군인에게 시집가고 말았다. 그러나 12년 후 그들은 또 운명적으로 상봉하였다. 12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은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다. 란이는 아이와 남편을 택하느냐 아니면 12년간 물어온 첫 사랑을 되찾느냐는 갈림길에 서게 되며 이로 하여 막연한 고통 속에 빠진다. 마음씨 고운 남편에게 불행을 들썩운다는 ‘죄’ 의식과 잊지 못할 첫사랑에 대한 갈망 속에서 란이는 그만 정신분열증에 걸리고 만다. 작가는 전통적인 관념과 완전히 대립되는 이 ‘혼외련’에 대해 합리한 해부와 묘사를 진

행하면서 깊은 동정을 보내고 있다.

이선희의 「그녀의 세계」는 여성적인 섬세성으로 당대가정결구에 대하여 진솔하게 해부하고 애정과 가정에 대한 진지한 감정적 탐구를 보여준 심리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소설에서 주인공 윤희는 ‘현처양모’ 식의 전통적인 여성모델의 척도로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여성상이다. 신문기자 윤희와 기계공정사 순오와의 결합은 매우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깨끗한 외모나 풍부한 지식수양을 봐서나 서로 흠잡을 데 없다. 그러나 그들의 가정 생활은 무미건조하다. 윤희는 일반 여성들이 바라마지 않는 “완벽하고 이상적”인 가정을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어항 속에 홀로 갇힌 금붕어처럼 고독과 적막, 불만과 염오를 느낀다. 윤희는 서로간의 이해와 신뢰, 인격상의 존중과 생활상의 관심 및 부부간만이 가질 수 있는 아기자기한 감정교류, 애정을 부부관계의 근본으로 생각하느니만큼 일만 알고 감정교류를 모르는 목적 같은 남편과 살아가는 것은 자기기만이며 인생의 불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열렬한 사랑을 갈구하여 가정을 뛰쳐나가려고 한다. 이런 의미에서 윤희는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니나나 입센의 노라를 연상케 한다. 순오의 기계적인 생활에 대한 불만과 사랑이 없는 결혼생활에서 느끼는 공허감, 여기에 시 작지는 시대적인 변혁 기운에서 옹트고 있는 여성들의 애정과 혼인생활의 새로운 추구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작품들에서는 모두 현대적인 시각에서 현시대 여성들의 애정과 혼인관계에서 겪는 갈등과 새로운 추구를 탐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작품은 모두 해산기의 아픔을 쓰면서도 신생아의 울음소리는 통쾌하게 들려주지 못했다. 작자들은 아직도 낡은 도덕에 대해 그 어떤 끊어버릴 수 없는 미련을 두고 조심스럽게 갱신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3) 가정의무와 자아가치 실현간의 모순에서 오는 갈등과 고뇌

오늘날의 현대적 여성들은 여자로서 며느리, 아내,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하고 시집식구와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자아의식과 개인적 자유와 자아가치실현에 대한 강한 욕망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가정에서만 아니라 사업의 성공에서 삶의 가치와 의의를 실현하려는 진취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객관적인 생활 속에서 자아의 욕망이 쉽게 실현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 그녀들은 자아가치실현과 현실생활의 불일치, 부조화로 많은 갈등과 진통을 겪고 있다.

이화숙의 소설 「때까지」에서 신문기자인 전주는 남편의 “살뜰한” 사랑에 감싸인 안일한 보급자리에 만족하지 않는다. 남편과 아내, 가정과 사회라는 이 충돌 속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가치를 실현하고 저 용감하게 “그토록 애착하던 평생의 소원인 문학창작의 필”을 다시 든다. 그러나 이로 하여 남편과의 사랑은 식어만 가고 끝내는 가정불화를 초래한다. 이러한 엄중한 상태에 당면한 전주는 물러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학창작도 견지하면서 남편과의 감정도 회복해보려고 진지한 편지를 쓰기도 한다.

이화숙의 「그도 여인이었다」는 매우 사색적인 소설이다. 소설의 주인공 그녀에게 있어서 남편은 아내에 대한 사랑은 물론 아내의 사업까지도 한 가슴으로 안아주는 넓은 품이다. 가정생활도 물론 행복하다. 그런 그녀가 사업을 위하여 지금 부부사랑과 가정생활의 귀한 결실인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병원에 인공유산 하러 갔었는데 의외로 해산의 모진 고통을 겪는 여성들의 위대한 모성애를 보고 결국 아이를 낳아야 하는 여성으로서의 자기를 발견한다. 소설은 재래의 소설에서 별로 제시되지 않았던, 알량한 사랑과 가정만으로는 만족될 수 없는 지금 우리 사회 여성들의 고민과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 소설에서 주인공은 아주 독창적으로 그려졌다. 그녀는 지난날 우리 소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남편을 잘 받아들여주는 아내”, “직업에 매워 사는 여자”가 아니라 가정 앞에 사업을 두는 여성, 사업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자는 일편단심의 직업여성, 삐뚤어진 “사랑은 버려도 자유는 못 버려”식의 반역형의 여성형상이다. 결국 그녀는 한 인간으로서의 자아를 찾기 위하여 여성으로서의 자아와 싸움을 걸었다가 역시 여성으로서의 자기를 발견한다. 무엇보다 이 소설은 여성으로서 주인공이 느끼

는 심리적 갈등과 고통을 진솔하게 파헤쳤다는 데에서 문학사적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4) 이성애와 모성애의 충돌에서 오는 갈등과 고뇌

이성애와 모성애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의 발로이며 인간성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형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은 성별특징, 주요하게는 어머니, 아내, 딸이라는 이 세 가지 속성을 통해서 확인되며 여성의 가치의 식과 여성세계에 대한 파악도 혼히는 이 세 가지 속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현실생활에서 흔히 애정의 파열로 하여 여성들은 이성애와 모성애의 갈등을 겪게 되며 이 경우 대다수 여성들은 이성의 사랑을 포기하고 모성애에서 여성의 가치를 실현하려 한다.

그러하여 여성작가들은 현실생활의 이와 같은 갈등을 민감하게 포착하여 이성애와 모성애의 충돌 속에서 고민하고 모대기는 여성들의 심리적 갈등과 곤혹, 희생적인 삶을 그림으로써 이성애를 초월하는 여성들의 모성애적 가치의식을 두드러지게 표현하고 있다. 허련순의 「아내의 고뇌」, 「슬픈 계절」, 방룡주의 「웃놀이」, 이선희의 「어머니, 어디에 계시나요」, 김영금의 「바다가에서 만난 여인」, 정경숙의 「등근달」 등 작품은 이 방면에서 주목할 만한 소설들이다.

김영금의 소설 「바다가에서 만난 여인」은 희생 정신으로 충만한 한 어머니의 형상을 부각하고 있다. 소설의 주인공 해려운은 첫 남편과 아이가 없었으나 두 번째 남편과 결혼하여 임신하게 되자 "홀륭한 어머니로 돼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진다. 그러나 부모의 버림을 받은 쇼치를 잘 키우기 위하여 인공유산을 하며 백치에 가깝도록 지력이 떨어지는 쇼치에게 희망과 책임감을 부여하면서 홀륭한 어머니로 되기 위하여 심혈을 쏟아 붓는다. 해려운은 실로 인간에 대한 사랑, 사회에 대한 책임감으로 헌신적으로 살아온 숭고한 어머니 형상이며 현실생활에서 찾아보기 힘든 이상적인 형상으로서 80년대 여성소설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허련순의 소설 「슬픈 계절」은 해려운의 형상과는 달리 이상적 색채가 바래진 현실적인 어머니 형상, 즉 평범하면서도 원초적인 모성애로 충만한 어머니의 형상이다. 그녀는 추한 용모로 하여 이성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외롭게 살아가는데 그 운명마저 기구하다. 그녀에게 있어서 삶의 유일한 의미란 아들을 잘 키우는 것이다. 때문에 아들의 생계를 위하여 성애가 없는 부실이와 가정생활을 이어갔고 또 집을 뛰쳐나간 아들을 기다리기 위하여 부실이와 갈라진다. 그는 홀로 있으면서 생의 모든 희망을 아들과의 만남에 기탁하고 필사적으로 일한다. 그의 눈물, 비애, 기대, 기쁨은 모두 아들과 연계되어 있고 삶의 의미와 생명의 가치는 아들에 대한 사랑에 귀결되어 있다.

이선희의 소설 「어머니, 어디에 계시나요?」는 이혼이 어린아이에게 끼친 비극적 결과를 전시함으로써 이혼한 여인이 어머니 사랑을 잃은 자식의 운명에 쏟는 심리적 고통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같은 작가의 단편소설, 「한 여인의 마음」은 웬 사나이의 후실로 들어간 헤란이가 자기가 데리고 들어온 아들을 보육원에 맡겨야 하는 아픔을 감수하던 나머지 “본댁”이 두고 간 딸이 그리워 다시 들어오려고 하자 결연히 자리를 내주고 철이를 포옹한다는 이야기를 엮고 있다. 이 소설은 모성애의 지고함과 이성애에 대한 모성애의 승리를 확신한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역시 당대 조선족 여성의식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보다시피 우리의 여주인공들은 일단 이성애와 모성애에 충돌이 생길 때에는 자식을 위하여 서슴없이 자기의 사랑을 포기하고 자진해서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간다. 그녀들은 삶의 어려움과 절망의 공허 속에서도 오직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삶을 지탱해 나갔다. 이렇게 우리의 여성작가들은 이성애를 초월한 모성애의 위대하고 눈물겨운 이야기들을 감동적으로 엮고 있는 바 우리는 이들 소설을 통하여 여성들의 초자아적이고 숭고한 모성애에 머리 숙여지면서 아울러 현대문명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 여성들의 의식 속에는 그만큼 ‘현치양모’의 윤리도덕의식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다.

5) 남권주의에 대한 도전과 여성 자신에 대한 긍정과 확신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여성작가들은 많은 여성적인 자아와 남성적인 세계와의 대결을 기본 제재로 삼으면서 이성간의 **갈등**으로 이야기를 엮고 있는데 이런 소설에서 전통적인 남성본위의 문명사에 대한 불만과 도전은 여성의 인격·도덕적 가치에 대한 확신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선희의 단편소설 「도라지꽃의 오누이」는 여성적인 자아와 남성적인 세계와의 대결을 통하여 여성의 숙명적인 불행과 그러한 불행에서 벗어나려는 한 시골여성의 모지름을 펼쳐 보인 역작이다.⁴⁾ 순희네 집에서 남자는 주인이고 여자는 노예이다. 아버지는 오빠 아래로 순희가 태어나자 오빠한테 젖을 먹이고 순희를 남에게 주라고 한다. 어머니가 울며 빌어서야 계속 키울 수 있었지만 그 대신 순희가 먹어야 했을 어머니 젖을 오빠가 다섯 살까지 먹는다. 아버지는 오빠는 현성에 보내어 공부시키고 일등으로 공부 잘하는 순희는 때어서 오빠 뒤를 대게 한다. 아버지는 순희를 “발씻는 물만큼이나 여기”며 노예처럼 부린다. 부권은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이어져 오빠도 순희를 물화(物化)된 예속물로 취급한다. 오빠는 매일 멧이나 따고 자전거 타고 놀러나 다니고 돈을 내놓으라고 아버지를 구박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사 사기가 혼전만전 써버린 800원 빚을 갚기 위해 순희를 개정집 병신아들에게 팔아버린다. 그리하여 순희는 자기의 어깨까지도 오나마나한 **흉측한 병신**한테 팔려 시집간다. 그러나 인습과 기성윤리에 매인 순희는 말없이 그 집에서 “불 때고 개고기를 찢고 채소를 씻고 밥을 하면서 철두철미 부엌데기노릇을 한다.” 실로 “송냥이 굴에서 빠져 나와 범굴에 든” 셈이다. 순희는 살아갈수록 불만이 가득 쌓이던 중 조장아주머니를 비롯한 이웃사람들의 영향으로 “**감정이 파열되면 이혼할 수 있다.**”는 “**신비한 법**”도 알게 되고 “**인간의 권리를 찾느냐 못 찾느냐 하는 갈림길에** 들어서 자신을 발견한다.” 그는 마침내 시어머니에게 이혼을 “**선포**”하고 대부금을 얻어서 식당

4) 김순녀:「탐색과 곤혹」, 『여성연구』(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1994년), p.89.

을 꾸린다. 첫째 다섯 달만에 대부금 절반을 갚고 몇 해만에는 아근에 소문난 식당주인이 되어 오빠를 종업원으로 부리며 “인간이란 자립해야만 인간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순희의 형상은 남성본위의 세계에서 굴욕과 천대를 받아온 여성의 수난사를 집약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성의 인격적, 경제적 자립을 긍정하면서 남성본위의 세계에 대한 세기적인 도전과 승리를 보여주고 있다.

이선희의 소설 「아버지의 참회의 눈물」은 20년만에 흘리는 아버지의 참회의 눈물을 통하여 남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전통적인 가정이 새로운 윤리관념의 충격과 도전을 받고있다는 것을 제시하면서 여성의 자립적 인격의 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소설에서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본래 금실이 좋은 부부였다. 아버지의 대학공부를 뒷바라지하느라고 어머니는 5년간 반신불수로 된 시부모를 모셨고 아버지가 이름 있는 주치의사가 된 후에도 어머니는 의연히 마른일 굶은일 도맡아 하면서도 반반한 음식은 남겼다가 아버지에게 대접했다. 어머니는 자기의 희생으로써 아버지의 성공을 바꾸어왔다. 그러나 어머니에게 차례 진 것은 아버지의 매정한 배반과 자신의 흘러간 청춘이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 비극 속에 자기의 운명을 맡기지 않았고 강한 의지로 독립적인 자아를 찾았다. 소설에서 어머니의 분발, 곧 어머니가 대학을 졸업하고 마침내 책임일군으로 되어 자기의 지혜와 정열을 나라건설에 바쳐 가는 모습을 통하여 여성들은 응당 자신의 가치에 대하여 정확히 인식하고 이상적인 애정생활을 쟁취해야 한다는 여성각성과 자아의식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아버지의 참회”는 “남자는 재주요, 여자는 인물”이며 “여자에게는 무 재간이 덕”이라는 전통적인 애정 윤리관에 대한 맹렬한 도전이다. 따라서 “애정이란 동등한 자격자간의 기쁨의 유대”로서 쌍방이 평등한 인격과 수준을 확보해야만 그 평형을 유지할 수 있으며 불평등은 곧 파괴의 잠재력이라는 주장도 암시하고 있다.

허련순의 「사내 많은 여인」에서 작가는 사회의 전통관념에서 오는 비난과 풍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진정한 사내”를 찾아 나서는 한 여인의 고뇌

와 진통을 생동하게 묘사하는 동시에 “사내”들의 허위와 기만으로 팽창된 남권주의에 예리한 도전을 걸고 있다. 진실이 은폐되고 허위가 진실로 둔갑하는 현실 속에서 전통의식에서 보면 옥란이는 방탕한 “사내 많은 여인”이지만 역반적 여성의식에서 보면 옥란이는 하나의 “진정한 사내”도 없는 가련하고 고독한 여인이다. 바로 여기에 남권사회에 대한 도전과 역반의식이 태동하고 있다.

이처럼 여성소설은 우리 조선족 사회에서 하나의 사회문제로 되고 있는 혼외련의 본질을 신랄하게 조소, 풍자하면서 남성들이란 대체로 위선적이고 허위적인 존재이며 특히 이성지간의 사랑에 있어서 여자는 사랑을 위하여 자기를 바치지만 남자는 자기를 위해 사랑을 바쳐버리는 믿을 수 없는 존재임을 낙인하고 있다.

우리의 여성작가들은 소설에서 전통적인 윤리도덕관과 남권주의, 남성세계의 허위를 비판함과 동시에 넓은 흥금과 이량으로 남성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이상적인 여성상을 그리기도 하였다. 이선희의 소설 「마음의 천평」에서 금녀는 10년 전 원우 어머니의 반대와 원우 자신의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말미암아 실연의 고배를 마시고 口시를 떠난다. 그런데 남편이 口시 인사국장으로 승진하자 금녀는 나시 옛 연인 원우와 객상을 사이 두고 마주있게 된다.

금녀는 아내 하나 전근시키지 못하고 여태껏 견우직녀 생활을 하고 있는 원우를 보고 미묘한 쾌감을 느끼기도 하고 원우 부인이 전근시켜 달라고 도움을 청할 때는 그녀를 가증스럽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마침내 세속적인 여성의 질투와 복수심리를 초월하여 넓은 흥금으로 남편의 권력을 “악용”하여 원우 아내의 전근문제를 해결해준다. 이선희의 단편 「세월의 매듭」 역시 30년 전 첫사랑에 대한 남편의 추억과 비밀을 너그럽게 이해하고 남편의 등을 밀어 죽어 가는 “사랑의 적수”를 간호하게 하는 윤씨의 심리적 갈등을 눈물겹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여성소설에서 여주인공들은 모진 심리적 아픔을 이겨나가면서 여

성에게 특유한 시기와 질투를 초극하고 “사랑의 적수”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과 사랑을 베풀고 있는바 여성작가들은 소설을 통하여 여성들의 이러한 윤리·도덕적인 힘은 불신과 암투로 긴장된 인간관계를 해소하고 화해와 사랑의 세계를 창조하는 근본적인 요소로 되고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인간의 참된 윤리와 도덕은 “천사”와 같은 여성의 맑고 아름다운 심성에 원천을 두고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 또한 여성에 대한 아름다운 찬송가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우리 문단의 여성문학은 흔히 남권주의에 대한 역반의식을 그 기저로 하고 여성의 독립과 자존, 자강의식을 강렬히 표현하고 있으며 또 그 표현이 피부로 감수할 수 있는 진실성이 있다.

여성소설에서 남권주의에 대한 도전과 여성자아에 대한 긍정은 음성양쇄의 현실에 대한 예리한 해부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지금 여성소설가 운데는 남권주의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음성양쇄의 사회현실, 즉 여자에게 얽혀 사는 남자들에 대한 풍자도 심심찮게 보인다. 전통적인 관념에서 보면 남자는 가정을 지탱해주는 버팀목이다. 남자는 아내와 가족을 먹여 살리는 호주이고 아내는 남편을 받들고 도우며 가정을 꾸려 가는 보조역을 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개혁개방 후 우리 조선족 사회는 이런 전통적인 관습이 변해가고 있다. 정치중심의 사회에서 경제중심의 사회로 이행하게 된 사회적 전환기에 여성들이 시장경제의 경쟁에 남 먼저 뛰어들어 경제활동의 중심역할을 하는데 반해 전통적인 남성권위주의에 젖어 거드름만 피우고 큰 소리나 하고 집에 들어박혀 술이나 마시고 마작이나 하는 조선족 남성들, 아내가 보따리 장사, 해외진출해서 피땀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마작 놀고 계집질하고 가라오케 출입이나 하는 남편들, 여자들에게 얽혀 사는 남자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 여성소설, 특히 김옥희의 「환상의 늪」을 위시하여 단편 「동창생」, 「방황하는 계절」, 「동반자」 등 소설들에서는 이례적으로 여자에게 얽혀 사는 부끄러운 남자 족을 집중 조명하여 그들의 취약성을 정시하고 사정없이 고발함으로써 못 가정들이 앓고 있는 몸살의 근원에 접근하고 있다.

허련순의 「그림자의 저쪽」은 남권주의사회에서 소외된 고독감을 부여안고 몸부림치며 신음하는 여인상을 부각하고 있다. **중학교** 일터교사인 은정은 무역담판 통역에서 이름을 떨친 총명하고 재질 있는 여인이었다. 그러나 오시장의 아내가 되자 남편의 사회적 성공이라는 그 하나의 소망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시장의 충실한 “가정부인”으로 들어앉는다. 처음 그녀는 남편의 사업성공에서 인생의 가치를 감수했으나 점차 자아가치의 상실에서 오는 고독과 소외감에 모대기게 되었고 남편의 그림자에 불과한 자신의 삶에 반감을 가지게 된다. 밤마다 외로운 기다림 속에서 슬픔만이 쌓이는 그녀에게는 “시장부인”으로서의 생활보다 여인으로서의 생활이 더 그리웠다. 작자는 은정의 형상을 통하여 여성의 독립적인 인격과 자아를 강하게 호소하고 있다. 소설의 결말에서 술집에 “시장이 갈 수 있는데 왜 시장부인이 못 가겠어요.”하며 남편에게 들이대던 은정의 항변은 남권주의에 대한 강렬한 도전이며 또한 작가의 투철한 여성 의식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여성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을 보면 남성들은 대체로 고루한 ‘남존여비’ 사상에 젖어 있고 인간적으로 게으르고 사리사욕하고 경박하고 위선적인데 반하여 여성들은 사회와 가정을 말없이 지탱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체로 부지런하고 헌신적이며 너그럽고 선량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형상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이선희의 소설 「도라지골의 오누이」에 등장하는 오빠, 「환상의 늪」에서의 영재, 「그림자의 저쪽」에서의 오시장, 「방황하는 계절」에서의 근수, 「아버지의 참회의 눈물」에서의 아버지, 「역광」에서의 경민이 등의 **형상들은** 긍정적인 여성주인공들과는 천양지차로 대립되는 성격들이다. 작가의 의도는 분명한바 이런 상반되는 형상장조를 통하여 남권주의 사회에 도전하고 여성자신을 힘있게 긍정하면서 전반 인류사회를 뒷받침해 온 것이 바로 여성들이라는 것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위에서 여성문학의 특성을 여성적 고뇌와 갈등에 대한 진실한 묘사, 남권 사회에 대한 도전과 여성자아에 대한 긍정과 확신 등으로 분류하여 서술하였지만 여성문학의 특성은 여기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밖에도 사회·정치적인 큰 문제보다는 일상적이고 범속한 생활세계나 개인적인 체험을 즐겨 다루고 여성특유의 감각에 대한 섬세한 발굴과 포착, 여성의 심리세계 및 감성적이고 감각적인 것에 대한 생동하고 섬세한 묘사 등에서도 여성문학 고유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아무튼 여성문학이 주제, 시각, 방법 등 제 방면에서 남성작가와 구별되는 특성을 보다 뚜렷하게 살리게 될 때 여성창작의 개성은 더욱 두드러지게 되고 따라서 문학창작에서 독특한 예술적 가치를 과시하게 될 것이다.

물론 여성소설창작에는 한계성도 있다. 이를테면 여성소설에서 여성의식의 표현은 또 그로부터 야기되는 약점을 동반하고 있음을 보아낼 수 있다. 여성작가들의 의식세계는 대개 개인적 경험범위내의 자아의식에 국한되어 있기에 흔히 시각의 개방성이 약하고 표현된 생활세계가 좁다. 그리하여 여성의식의 표현이 초기에는 신선감을 주나 그것이 반복되면 따분한 느낌을 준다. 여성작가들은 여성의식의 표현에서 여성의 봉쇄적인 내심세계, 협소한 경험세계에서 벗어나 변화되는 현실과의 연계에 주의하고 역사와의 대화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독자는 인류적인 삶과 역사를 감지하게 될 것이다. 또 그렇게 될 때에야 여성의식의 표현이 보다 심오한 예술적 가치를 갖게 될 것이다.

Abstract

The Open-door Policy and the Literature of the
Korean-Chinese(朝鮮族) Women

Wu Xiang-Shun

Korean-Chinese women literature has been formed from the latter half of the 80' s to now in accordance with the feminism-mind awakening and with the works including living condition, life pilgrimage and the value of those women written by 30 or so independent-minded women writers. The world of Korean-Chinese women literature became larger and further in the 90' s when 45 or thereabouts women writers published a good many storybooks.

Novels of women writers in the 80' s tended to assume rather romantic, ideal and somewhat ideological touch and emphasize the female image with traditional value, so called, “外柔內剛(cozy appearance, strong mind)” or “賢妻良母(wise wife, good mother)”. But on the other hand, they began to create new woman-ideal character who would search for independent personality, making a great exertion to escape from the past fettered by sexist convention.

The feature of Korean-Chinese women literature can be generalized to 1) strongly adhesive pursuit to the solution of women' s agony and conflict, 2) challenge to the phallocentrism and affirmation of women themselves, 3) sincere following-up of love, and so on.

While most women writers in the 80' s described the anguish and stress of women caused by the contradiction between traditional moral-

ity and modern value or what not, those in the 90' s seriously pointed out several problems concerning the change of women' s sense of values and their destiny in the shock of commodity-market economy. It goes without saying that such is an extension and deepening of women literature in the late of 80' s investigating the doom of women.

There are not so few works attacking problems of our Korean-Chinese intelligentsia women at the grass-roots. Especially, It is very impressive that those intelligentsia women go astray because of the spiritual poverty and lack of love through the transition period of the open- door policy.

